

축산업계 4대 난제 유용미생물로 해결

전북대, 두지포크 - 코리아메디케어와 협약 체결... 축산기술 연구 성과 공유·건강한 먹거리 기대

전북대학교 동물분자유전육종사업단(단장 이학교)이 각종 가축 질병과 환경, 생산성 저하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예코 프로바이오틱스 솔루션'을 기업 등과 공유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업단은 명품 돈육 브랜드인 두지포크(대표 장성용 박사), 그리고 메디컬 컨텐츠 기업인 (주)코리아메디케어와 14일 오후 전북대 농생대에서 '메디컬-농축산 분야의 융합 환경 조성'을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유하는 예코 프로바이오틱스 솔루션은 가축의 질병과 약취, 분뇨처리, 생산성 저하 등 축산업계가 가진 4대 난제를 유용미생물로 해결하는 축산 기술로, 고품질의 육질 생산이 가능한 뿐만 아니라 고농도의 프로바이오틱스를 양돈농가에서 사료용, 음수용, 축사 소독용으로 활용하면 돼지의 면역력이 높아지고 신진대사가 촉진된다는 것이 연구 결과로 확인됐다.

실제로 돼지의 구제역 항체 형성률이 86.8%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20% 이상의 폐사율 감소, 30% 이상의 축사 약취 감소, 3% 이상 생산성이 향상됐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예코 프로바이오틱스 솔루션의 연구 내용



전북대학교 동물분자유전육종사업단이 두지포크, 메디컬 컨텐츠 기업인 (주)코리아메디케어와 14일 오후 전북대 농생대에서 '메디컬-농축산 분야의 융합 환경 조성'을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을 공유하고 사람과 동물의 건강한 공존·공생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명품 돈육인 두지포크에 정보 교류와 산업화를 위해서도 상호 지원하기로 했다.

장성용 두지포크 대표는 "이번 협약은 국내 축산 경쟁력 확보는 물론 친환경 동물복지 환경 조성을 위한 단초가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산학협력력을 통한 고품질 돈육을 생산, 판매

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학교 동물분자유전육종사업단장은 "우리 연구진들은 각종 가축 질병과 환경 문제로 인해 생기는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유용미생물을 체계적으로 활용한 예코 프로바이오틱스 솔루션 기술을 적용하여 항생제와 백신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냄새 저감

및 질병에 강한 본격적인 한국형 고품질 돈육을 생산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대 동물분자유전육종사업단은 메디컬 분야와 동물생명 분야의 융합 협력을 통해 각종 가축 질병과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소비자들은 인체에 유익한 성분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건강한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신학기 개인정보 관리 철저 기해야

전북교육청, 개인정보 처리 유의사항 안내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집중되는 신학년·신학기를 맞아 개인정보 처리에 주의를 당부했다.

도교육청은 '신학년·신학기 개인정보 처리 유의사항'을 도내 각급 학교를 비롯해 교육청 소속 모든 교육행정기관에 안내했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업무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고 그 목적에 맞는 용도로만 활용하도록 했다.

특히 학사업무와 무관한 학부모 직업이나 학력 등의 과도한 정보를 수집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줄 것을 안내했다.

또 홈페이지 파일 탑재하거나 강당·벽면·교내 게시판에 자료 공지 시 개인정보 포함여부 확인, 첨부파일 탑재시 엑셀문서 지양, 메

신자를 이용한 개인정보 파일 공유도 지양하도록 했다.

이메일 발송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메일을 이용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전송할 경우 파일 수신사 및 파일 암호설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한 것이다.

제3자 제공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도 강조했다. 학사업무에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홍보·마케팅 활용 등 목적을 초과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자 제공 위반에 해당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전달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를 이용해 업무처리를 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을 확인, 준수하도록 기관별 교육을 실시해 줄 것을 안내했다. /장은성 기자

톡톡 튀는 학생 아이디어 사업화 돕는다

전북대, 창업동아리 40개팀 모집... 20일 사전 설명회 개최

전북대학교 창업교육센터(센터장 배준수)가 지역경제를 선도하고 우수 창업 아이디어와 기업이 정신이 함양된 청년 예비 창업가 발굴을 위해 예비 창업동아리와 학생창업기업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창업교육센터는 오는 4월 19일까지 예비 창업동아리(기업) 총 40팀을 모집한다. 참여 방법은 전북대 재학생(대학원생 포함)으로 3인 이상으로 구성 된 팀으로, 창업 아이디어

가 있고 다양한 창업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개인 역량을 강화하고 싶은 재학생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창업동아리는 생각에만 머물고 있는 아이디어를 사업계획서 작성, 시제품 제작을 통한 시장 검증에 하게 되며, 학생창업기업은 구체적인 창업 아이디어 비즈니스 모델 및 시제품을 보유하고 있어 지원을 통해 올해 사업화(창업)가 가능한 팀이다.

전북대는 선정된 팀을 대상으로 1개

월 동안 창업 역량강화 교육과 전문가 멘토링 지원 등을 통해 아이디어를 구체화 시킬 계획이다. 또한 5월 말 '드림나라 창업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해 창업동아리는 500~700만 원, 학생 창업기업은 1천만 원 이내의 시제품 개발비와 창업 공간을 지원한다.

또한 창업동아리(기업) 활동 팀에게는 창업 경진대회 지원, 창업 캠프, 해외 프로그램 등 다양한 창업교육 프로그램 참가 기회가 주어지며, 일정한 창업교육활동 기준을 충족하면 창업교육인증서와 3학점, 창업포인트 장학금(100만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배준수 창업교육센터장은 "다양한 생각과 아이디어가 있지만 이를 어떻게 창업으로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고민하는 학생들을 위해 수년째 지원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며 "창업에 대한 예산 지원과 함께 다채로운 창업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기업가마인드와 도전의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대는 예비 창업동아리(기업) 지원 사업에 대한 학생들의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20일 대학 내 건지원 2층에서 열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학생은 19일까지 창업교육센터 홈페이지(<http://startup.jnu.ac.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학교에 부담 주는 불필요한 공문서 최소화

전북교육청, 공문서 감축 추진

전북교육청은 학교에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공문서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문서 감축에 적극 나선다.

1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2019년 공문서 감축 추진 방안'을 각 지역교육

지원청과 직속기관 등에 공문으로 전달하고, 단위학교에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공문서 생산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감축추진 방안 따르면 단순 알림 공문이나 경미한 내용의 공문을 통합 게시판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또 각급기관에서는 공문서 통제관을 지정, 각급 학교로 발송되는 모든 공문서에 대해 적정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공문서 통제관은 도교육청에서는 과장 및 담당관이,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은 각 부서장과 과장이 맡게 된다.

각급 학교에 단순하거나 경미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자료집계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공문서 생산량을

줄이고 업무 간소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북교육연구정보원에서 자료집계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사용자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공문서 불필요 신고제도 시행된다. 도교육청 누리집에 공문서 불필요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통합게시판 처리와 모니터링 결과로 활용한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학교 국어문화원이 '전라북도 우리말 가꿈이'를 모집한다.

"바른 말로 함께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요"

전주대, 우리말 가꿈이 모집

전주대학교 국어문화원이 '전라북도 우리말 가꿈이'를 모집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북도가 공동 주최하고 전주대학교 국어문화원에서 주관하는 '우리말 가꿈이'는 국민들의 올바른 언어 사용과 상호 배려하는 언어문화 조성에 앞장서는 대학생들의 자율적인 사회공헌 활동이다.

우리말 가꿈이는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월 1회 이상 범국민 대상 언어문화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에 참여하고,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우리말·글 사랑을 전하게 된다. 우리말

가꿈이 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물품 등이 지원되며, 활동 우수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과 도시사상 등의 포상도 주어진다.

지원 방법은 전주대학교 국어문화원 누리집(<http://korean.jnu.ac.kr>)에서 지원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korean5@daum.net)로 신청하거나 국어문화원에 직접 방문하면 된다.

대학생 개인 및 단체 신청이 가능하며, 접수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한편, 우리말 가꿈이 활동에 관한 문의는 전주대학교 국어문화원(063-220-3222)으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